

교회의 회복

(토요일 — 저녁 집회)

메시지 9

교회의 신분 — 그리스도의 배필

성경: 창 2:18-25, 요 19:34, 엡 5:25-27, 32

- I. 성경 전체는 신성한 로맨스이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에게 어떻게 구혼하시고 결국 그들과 어떻게 결혼하시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 창 2:21-24, 아 1:2-4, 사 54:5, 62:5, 렘 2:2, 3:1, 14, 31:32, 겔 16:8, 23:5, 호 2:7, 19, 마 9:15, 요 3:29, 고후 11:2, 엡 5:25-32, 계 19:7, 21:2, 9-10, 22:17.
- A.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하와가 아담의 생명을 받은 것과 같다 — 창 2:21-22.
 - B. 바로 이 생명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그분을 우리와 하나 되게 할 수 있다.
 - C.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상호적인 사랑이 있어야 한다 — 요 14:21, 23, 출 20:6.
 - D.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사랑은 주로 남녀 간의 애정 어린 사랑과 같다 — 렘 2:2, 31:3.
 - E.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간을 들여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과 교통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한 요소를 그들에게 주입하심으로써 그들을 그분의 배필로서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신다. 즉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그분과 똑같이 되게 하신다 — 시 119:140, 15-16, 엡 5:25-27.
- II.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라는 예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그림을 본다.
- A. 아담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예표인데, 이 하나님은 우주적인 참된 남편으로서 그분 자신을 위한 한 아내를 찾고 계신다 — 롬 5:14, 비교 사 54:5, 요 3:29, 고후 11:2, 엡 5:31-32, 계 21:9.
 - B.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도울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 창 2:18.
 - 1. 아담에게 아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자신의 배필, 곧 짝(직역하면, 맞은편짝)이 되는 아내가 필요하시다는 것을 예표하며 묘사한다.
 - 2. 비록 하나님, 곧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으로 영원히 완전하실지라도, 그분의 아내인 교회가 없이는 온전하지 않으시다.
 - 3.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담과 교회를 예표하는 하와 모두를 갖기 원하신다. 그분의 목적은 ‘그들이 통치하게 하는 것’이다(창 1:26). 즉 그분의 목적은 승리하신 그리스도에 더하여 승리한 교회를 얻는 것, 곧 마귀의 일을 이기신 그리스도에 더하여 마귀의 일을 전복시킨 교회를 얻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통치하기를 원하신다 — 롬 5:17, 16:20, 엡 1:22-23.
- III.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위한 배필을 신출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한다.

- A. 하나님은 흙으로 온갖 들짐승과 하늘의 새를 지으셨고, 그것들을 아담에게 데려가셨다. “그 사람이 모든 가축과 하늘의 새들과 온갖 들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런데 아담은 그 가운데서 자신을 도울 배필을 찾지 못하였다.” — 창 2:19-20.
1. 아내는 반드시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남편과 같아야 한다.
 2. 아담은 가축이나 새나 짐승 가운데서 자신을 위한 배필, 곧 자신과 어울릴 수 있는 배필을 찾지 못하였다.
- B.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것의 예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위한 배필을 산출하시기 위해 먼저 사람이 되셨다 — 요 1:14, 롬 5:14.
- C.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자, 그가 잠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 창 2:21.
1. 아담이 아내인 하와를 산출하기 위해 깊이 잠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배필인 교회를 산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여 주는 예표이다 — 엡 5:25-27.
 2. 성경에서 잠은 종종 죽음을 의미한다 — 고전 15:18, 살전 4:13-16, 요 11:11-14.
 3. 그리스도의 죽음은 생명을 해방하고, 생명을 나누어 주며, 생명을 번식시키고, 생명을 번성 시키며, 생명을 재생산하는 죽음이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자라서 많은 밀알을 맺는 것으로 상징되며(요 12:24), 이러한 밀알은 떡, 곧 몸인 교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고전 10:17).
 4.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 안에 있던 신성한 생명이 해방되었고, 해방된 이 신성한 생명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교회를 조성하기 위해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되었다.
 5.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의 생명과 본성을 사람 안으로 일해 넣으셨다. 그리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배필로서 그분과 어울리도록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었다.
- D.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시고, 그 여자를 그에게 데려가셨다.” — 창 2:22.
1. 아담의 열린 옆구리에서 빼낸 갈빗대는 부서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보여 주는 예표이다(히 7:16, 요 19:32-33, 36, 출 12:46, 시 34:20). 이 영원한 생명은 창에 찢린 그분의 옆구리(요 19:34)에서 흘러나와, 그분 자신의 짝인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하기 위해 믿는 이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준다.
 - a.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는 피와 물이 나왔지만,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것은 피 없이 갈빗대가 전부였다.
 - b. 아담의 때에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피를 통한 구속이 필요하지 않았다.
 - c.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잠들어 계셨을’ 때에는 죄의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는 우리의 법리적인 구속을 위한 것이었다.
 - d. 피에 이어 물이 나왔는데, 이 물은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흐르는 생명을 가리킨다(출 17:6, 고전 10:4, 민 20:8). 아담의 옆구리에서 빼낸 갈빗대는 이 신성하고 흐르는 창조되지 않은 생명을 예표한다(롬 5:10).
 2. 창세기 2장 22절은 하와가 창조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건축되었다고 말한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빼낸 갈빗대로 하와가 건축되었다는 것은 교회가 부활 생명으로 건축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예표인데, 이 부활 생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에게서 해방되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된 생명이다 — 요 12:24, 뱀전 1:3.

3. 참하와인 교회는 모든 믿는 이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총체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생 산이다. 그리스도의 요소 이외의 다른 요소가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 창 5:2.
4.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함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이 그리스도의 짝과 배필인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다 — 고전 12:12, 엡 5:28-30.
 - a. 우리는 살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에서부터 표현되실 수 있을 때까지 타고난 생명을 완전히 벗어 버려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실재에 있어서 교회일 것이다 — 골 3:10-11.
 - b.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것을 살아 나타내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갈 2:20)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빌 1:21). 이것이 교회이다!
 - c.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이 그리스도께 인정받을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그리스도와 어울릴 수 있다.
5. 성경의 끝에는 한 성, 새 예루살렘, 최종적이고 영원한 여자, 단체적인 신부, 어린양의 아내(계 21:9, 22:17)가 나오는데, 이 성은 세 가지 귀한 재료로 건축된 것으로서(21:18-21) 창세기 2장에 있는 예표에 대한 영원한 성취이다. 그러므로 예표에서 볼 때 창세기 2장 11절과 12절에 언급된 모든 귀한 재료는 다 여자를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6. 아담에게서 나온 하와가 아담에게 돌아가 아담과 한 몸이 되었듯이(창 2:24), 그리스도에게서 산출된 교회는 그리스도께 돌아가(엡 5:27, 계 19:7) 그분과 한 영이 된다(고전 6:17). 한 몸인 남편과 아내로 예표된, 한 영인 그리스도와 교회는 위대한 비밀이다(엡 5:28-32).
7. 하나님께서 아담의 결혼을 위해 하와를 그의 배필로 아담 앞에 세우신 것처럼, 장래에는 거룩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결혼을 위해 우리를 그분의 배필로 자신 앞에 세우실 것이다 — 엡 5:27, 31-32, 창 2:22-24, 계 19:7-9.
 - a. 에베소서 5장 27절은 “(그리스도께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신부의 아름다움을 제시한다.
 - b. 신부의 아름다움은 교회 안에 일해 넣어진 후 교회를 통해 표현되신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나온다 — 엡 5:26, 시 45:9-14.
 - c. 주님의 회복은 모든 이기는 이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 계 19:7-9, 창 2:22, 마 16:18.
- E. “그 사람이 말하였다. ‘이번에는 나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하리라.’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된다.” — 창 2:23-24.
 1. 히브리어로 남자는 ‘이쉬(ish)’이며, 여자는 ‘이샤(ishshah)’이다.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순수한 산출물이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하고’, ‘부활에 속하고’, 하늘에 속한다.
 2.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거듭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로서 사는 이들만이 그리스도께 어울리고 그분의 짝이 될 수 있다.
 3. 그리스도는 이것을 보실 때 분명히 “이번에는 나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구나!”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 비교 창 2:23, 엡 5:30.

4. 하와가 아담의 증가였듯이, 신부인 교회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증가이다 — 요 3:29-30.
 5. 아담과 하와가 한 몸, 곧 하나의 완전한 단위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합해지는 것을 보여 주는 그림이다. 장차 올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의 영원한 연결, 곧 신성과 인성으로 구성된 완전한 단위인 우주적인 부부가 될 것이다 — 비교 창 5:2.
- F. 아담과 하와는 하나가 되어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결혼 생활을 하였다(창 2:24-25). 이것은 새 예루살렘에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구속하시는 삼일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남편으로서, 아내인 구속받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사람과 함께 영원토록 결혼 생활을 하실 것을 묘사한다(계 22:17상).
1. 성경의 전체 계시는 우리에게 우주적인 한 부부의 사랑의 이야기를 보여 준다.
 2.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자이신 주님, 즉 육체가 되시고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과정을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삼일 하나님(아버지와 아들과 영)께서 창조되고 구속받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세 부분(영과 혼과 몸)으로 된 사람과, 즉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표현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과 결혼하심으로 합해지신다.
 3. 끝이 없는 영원 안에서 그들은 신성하고 영원하며 비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한 영으로 연합된 생활, 즉 탁월하기 그지없고 축복과 기쁨이 넘쳐 흐르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절차

생명이신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일해 넣으심

배경 — 창 2:18-20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께 좋지 않음

사람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도울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창 2:18)라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완전했으나 온전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사람의 머리는 완전하지만 몸이 없으면 온전하지 않다. 모든 사람은 수박의 반쪽과 같다. 그는 단지 수박의 반쪽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다. 그가 완전하더라도,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반쪽이 필요하다. 온전한 수박이 되기 위해서는 두 쪽이 모두 필요하다. 이와 같이 남편과 아내는 수박의 두 쪽과 같으며, 합하여 온전한 단위를 이룬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종종 젊은이들에게 결혼하라고 말한다. 결혼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완전할지 모르나 온전하지는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을 보시고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아담아, 너는 완전하지만 단지 반쪽일 뿐이다. 너는 너무 외롭다. 나는 너를 위해 짝을 만들어 주겠다. 나는 너에게 배필을 지어 주겠다.”

사람은 참되고 우주적인 남편이신 하나님의 예표이다. 하나님은 합당한 사람을 얻으시기 전에 혼자 계셨다. 하나님께서 혼자 계시는 것은 좋지 못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영원히 완전하시지만, 온전하지는 않으시다.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을 모독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완전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없을 때 그분은 온전하지 못하시다. 교회가 없을 때 그분은 마치 아내 없는 남편이나 몸 없는 머리와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온전하지 않으시다는 뜻이며 그분께서 혼자 계시는 것이 좋지 않다

는 뜻이다. 아담에게 아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짝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표하고 묘사한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보았다면 창세기 2장의 모든 방면이 분명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짝이 될 하나님 같은 것이 없음

하나님은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하늘의 새들을 지으셔서 그것들을 아담에게 데려가셨다(창 2:19). 하나님께서 말을 아담에게 데려오셨을 때 아담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이것은 말이다. 이 말은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말은 다리가 넷이고 나는 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소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을 때 아담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이것은 뿔이 두 개 있는 소이다. 이것은 나를 닮지 않았으며 내 짝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하나하나 아담에게 데려오셨고 아담은 모든 가축과 하늘의 새들과 온갖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 그러나 그는 이것들 중에서 그를 위한, 자신과 어울리는 짝을 찾지 못했다(창 2:20). 지혜 있는 아담은 모든 피조물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지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이 모든 것들은 나와 너무 거리가 멀다. 그들은 나와 같지 않다. 어떻게 내가 그들 중 하나를 나의 배필로 삼을 수 있겠는가?” 모든 피조물에게 이름을 지어 준 후에 어느 면에서 아담은 실망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그는 자신과 어울리고 자신을 보완할 존재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 자신께서 하실 일을 정확히 아셨다.

그러고 나서 주 하나님은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빼내셔서 여자를 건축하셨으며 그녀를 이끌어 남자에게 데려오셨다(창 2:22). 아담이 잠에서 깨어 하와를 보고, “이번에는 나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구나!”(창 2:23)라고 말했다. 아담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다. 과거에는 사자, 말, 비둘기, 거북이 등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나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구나. 이것은 확실히 나의 나머지 부분이요 두 번째 부분이다. 이것은 나와 완전히 어울리는 나의 배필이다.” 두 부분인 아담과 하와가 합해졌을 때 그들은 한 육체가 되었으며 하나의 온전한 단위가 되었다. 이것에 의해 우리는, 아내인 하와가 남편인 아담의 짝임을 볼 수 있다. 하와가 없으면 아담은 온전하지 않다.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왔으며 그 둘이 한 육체가 되기 위하여 다시 아담에게 돌아갔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창세기 2장의 비유의 의의를 이해하는 기초를 갖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하와가 아담의 짝인 것과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짝이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기독교 안에 있는 매우 많은 것들이 ‘말과 소와 거북이와 비둘기’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어울릴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거듭나고 그리스도에 의해 사는 이들만이 교회로서 그리스도와 어울릴 수 있고 그분을 보완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보실 때, 그분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번에는 나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구나!”(참조 엡 5:30)

과정 — 창 2:21-24

이제 과정을 살펴보자.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짝을 산출하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사람이 되심 — 아담이 창조됨

어느 날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다(요 1:14). 이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처녀에게서 나셨으며 예수라고 불리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창조된 것에 의해 예표되었다. 창조 전에는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창조에 의해 갑자기 사람이 생겨났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탄생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다만 하나님이셨다. 그러나 육체 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다. 이 사람은 ‘참아담’이셨다. 창세기 2장에 있는 아담은 그림이었으며(롬 5:14),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서 나시으로써 ‘참아담’께서 오셨다. 성경에 의하면 에덴동산의 아담은 첫 아담이라고 불리며, ‘참아담’이신 주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리신다(고전 15:45). 마지막 분이신 그분이 참된 분이시다.

죽음을 통과하심 — 아담이 잠들

어느 날 ‘참아담’은 십자가에서 오전 아홉 시부터 오후 세 시까지 모두 여섯 시간 동안 계시다가 마침내 잠이 드셨다(막 15:25, 33).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자”라는 구절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내를 건축하시기 위해 ‘갈빗대 하나’를 빼내셨다는 구절로 예표되었다(창 2:21). 아담이 잠든 것은 교회를 산출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의 예표였다. 이것은 생명을 해방하고, 나눠 주고, 번식시키고, 확산하고, 재산출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이러한 죽음은 몸인 교회라는 떡을 만들기 위하여(고전 10:17),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자라 많은 밀알들을 산출하는 것으로 상징된다(요 12:24).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산출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 안으로 일해 넣어져 사람에게 생명이 되셨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다. 그런 다음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가진 이 사람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많은 믿는 이들 안으로 확산되었고, 이러한 믿는 이들은 그분과 어울리고 그분을 보완할 참하와를 구성하는 많은 지체들이 되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사람 안으로 일해 넣어지셨고, 그 결과 사람은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같아져 그분과 어울리는 그분의 짝이 될 수 있다.

그분의 생명이 흘러나옴 — 아담의 갈빗대를 빼내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끝났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의 시체가 안식일에 십자가 위에 남아 있기를 원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다리를 꺾을 것을 빌라도에게 요청했다(요 19:31).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왔을 때 그들은 그분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그분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한 말씀이 이루어지게 했다(요 19:32-33, 36, 출 12:46, 민 9:12, 시 34:20). 그러나 군인들은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고 거기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요 19:34). 피는 구속을 위한 것이다(히 9:22, 뱀전 1:18-19).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우리는 맛은 반석의 예표를 본다(고전 10:4). 반석은 맛은 후 갈라졌고 거기에서 생수가 나왔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세의 지팡이로, 곧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맞으셨다. 그분은 갈라지셨다. 그분의 옆구리는 창에 찔렸으며 거기에서 물이 나왔다. 이 물은 교회를 산출하는 생명을 의미하는 신성한 생명의 흐름이었다.

이 생명은 아담의 열린 옆구리에서 빼낸 뼈인 갈빗대로 예표되었는데, 갈빗대로부터 하와가 산출되었고 건축되었다. 그러므로 갈빗대는 그리스도의 옆구리로부터 흘러나온 물로 상징된 신성한 생명을 예표한다. 그분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이것은 그분의 신성한 생명이 결코 꺾이지 않음을 상징한다. 그분의 육신의 생명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 어떤 것도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 흘러나온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꺾을 수 없었다.

부활하심 — 아담이 깨어남

아담이 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와를 산출하는 일을 끝마치신 후, 아담은 잠에서 깨어났다. 아담이 잠든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깨어남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 깨어난 후 아담은 자신에게서 산출된 하와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부활하신 후에 그리스도 또한 그분에게서 난 교회와 함께하는 다른 분이 되셨다. 결국 아담이 하와를 배필로 취하기 위해 잠에서 깨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또한 그분의 짝인 교회를 취하기 위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교회를 낳으심 — 하와가 건축됨

잠에서 깨어났을 때 아담은 그의 갈빗대로 건축된 하와가 있다는 것을 즉시 발견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고전 15:20), 교회는 그분의 신성한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이 해방되었으며, 해방된 이 신성한 생명은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그분을 믿은 우리들 안으로 분배되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한다(벧전 1:3). 그분은 땅에 떨어져서 죽으시고 많은 밀알들을 산출하신 한 알의 밀이셨다(요 12:24). 우리는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많은 밀알들이다. 그분을 생명으로 소유하고 그분에 의해 사는 거듭난 이들인 우리는 부활 안에 있는 참하와, 즉 그분의 교회를 구성한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번에는 나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구나!”(창 2:23)라고 말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셨을 때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나는 소들과 사자들, 거북이들, 물고기들, 새들을 보았지만 나와 어울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번에는 나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나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산출되었기 때문이다. 교회는 나에게서 나왔다. 교회와 나는 하나 될 수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물질적인 건물이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간다고 말한다. 창세기 2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예표의 의미를 본 후에 우리는 결코 다시는 물질적인 건축물을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물질적인 건축물은 교회가 아니라 나무와 벽돌로 건축된 집이다. 또 약간 진보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한 무리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한 무리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교회를 구성하지 못할 수 있다. 그들은 여전히 미국인, 중국인, 일본인, 멕시코인과 같은 타고난 사람들일지 모른다. 그러한 타고난 사람의 모임은 교회가 아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부이며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다. 교회는 믿는 이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요소이다. 많은 믿는 이들 안에 있는 이 요소가 모두 더해질 때 그것이 교회이다. 교회는 미국인, 멕시코인, 일본인, 중국인의 집합체가 아니다. 교회는 모든 믿는 이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총체이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일지라도 우리의 타고난 기질을 따라 살고 행한다면, 실제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아닌 것이다. 오직 얕은 의미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타고난 기질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전형적인 미국인, 유대인, 중국인일지 모르나 실지로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아니다. 실지로 무엇이 그리스도의 지체인가?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의 요소로 산출된 인격이다.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믿는 이들 안에 내주하신다. 그분의 믿는 이들 안에 계시는 이 그리스도가 모두 더해질 때 그 총합이 교회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한다. 우리는 살아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으로부터 표현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타고난 생명을 벗어 버릴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교회가 될 것이다. 새사람인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신다(골 3:11). 그리스도 이외의 것을 살아 내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갈 2:20)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빌 1:21). 이것이 교회이다! ‘이번에는’ 그분의 뼈 중의 뼈이다! 사람의 타고난 생명에서 나온 모든 것, 가령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의 모든 조직들과 모든 인간적인 활동들은 교회가 아니며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그분의 짝이 될 수 없다. 비유로 말하자면, 이것들은 하와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아담이 이름을 지어 준 다른 모든 것들로 간주되어야 한다.

사복음서에 묘사된 그림을 생각해 보자. 주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유대 종교인들을 보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것은 말이고, 저것은 거북이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분은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들은 내 배필이 아니다. 그들은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 그들은 결코 내 짝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주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다. 그분은 자신과 어울리는 참된 짝을 산출하도록 그분의 생명을 해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잡드셔야 했다. 부활 가운데, 죽음에서 일어나신 후에 그분은 교회를 보셨다. 그때, 특히 오순절날에 그분

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 “이번에는 나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구나!”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것만이 그리스도께 인정받을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것만이 그리스도께로 되돌려질 수 있고 그분과 어울릴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부터 나온 것만이 그리스도의 몸, 즉 그분의 짝과 배필이 될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것과 그리스도 자신만이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다.

그러나 서신서들은, 오순절 이후에 부정적인 많은 것들이 기어 들어왔음을 보여 준다. 말과 거북이 같은 동물들이 다시 나타났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셔야 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지금 그분은 다가올 결혼식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 결혼 날 그분은 이기는 이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번에는 나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구나!”

결혼 잔치를 향해 가는 길에서 우리는 모든 타고난 것들, 곧 타고난 사람에게 속한 것들과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을 쫓아내야 한다. 나는 많은 것들을 통과했다. 나는 기독교 안에서 태어나서 그 안에서 자랐다. 내가 많은 것들을 통과하며 생각할 때, 내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다. 어느 날 내가 올바른 것을 찾았을 때 내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은 “이번에는 맞다!”라고 말했다. 심지어 우리 중에서도 많은 경우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때, 부활 생명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하며 항상 그 음성을 따라야 한다.

사람과 하나 되심 - 아담과 하와가 한 육체가 됨

예표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는 한 육체가 된다(창 2:23-24). 실재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영이다. 왜냐하면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이기 때문이다(고전 6:17). 비유적으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믿는 이들은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다. 남편과 아내의 결혼의 연합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큰 비밀이다(엡 5:29-32).

성경을 읽을 때 만일 우리에게 그런 이상이 있다면, 우리는 아가(雅歌)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가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은 이’라고 말한다. 또한 우리는 타고난 방식이나 지식의 방식이 아닌 생명의 방식으로 신약 전체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거듭났고 재창조되었고 지금 그분과 한 영이며, 우리가 서로 하나이고 오늘날 이 땅에서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는 장래만을 기다리지 않고 오늘 단계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며 우리의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 또 다른 의미, 더 깊은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다만 미리 맛보고 있고, 장래에 결혼을 완전히 맛볼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 결혼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수행된다. 그 후 교회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어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완전하게 된 신부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된 아내는 영원토록 결혼 생활을 누릴 것이다. 물론 이 아내는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단체적이며 건축된 표현인 새 예루살렘일 것이다.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사람의 창조를 보고, 사람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신 하나님을 뜻하는 생명나무를 본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 안으로 일해 넣으실 때 사람은 생명의 흐름을 체험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생명의 흐름에는 금과 진주와 보석 등의 귀한 재료들이 있다. 창세기 2장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건축하신 것을 본다. 2장보다 앞에 언급된 모든 귀한 재료들은 이 여자의 건축을 위한 것이다. 만일 창세기 2장만 있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충분히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또한 성경의 끝에 여자인 새 예루살렘이 나온다. 이 여자는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건축된 하나의 성(城)이다. 창세기 2장에서 이 재료들은 생명의 흐름 안에 있지만 아직 건축되지는 않았다. 성경의 끝에서 이 모든 재료들은 궁극적이고 영원한 여자인 한 성으로 건축되었다.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하와로 예시된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으며,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세 가지의 귀한 재료들로 건축된, 어린양의 단체적인 신부인 새 예

루살렘으로 완결된 하와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발견되는 거의 모든 것이, 성경 전체에 걸쳐 자라서 요한계시록에서 수확되는 하나의 씨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본다.

오늘날 우리는 시작에 있지도 않고 완결에 있지도 않다. 우리는 노정에 있다. 나는 심지어 에베소서 5장 안에 있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그리스도의 결혼 잔치에 있고 싶다.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타고난 것들, 즉 소들과 거북이와 말 등등을 벗어 버려야 한다. 아마 당신의 타고난 기질은 강한 말과 같을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 타고난 생명을 벗어 버려야 한다. 우리 안에 또 하나의 생명, 또 하나의 요소인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하자. 우리는 반드시 이 생명에 의해 살아야 하며 밤낮으로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룰 것이며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있을 결혼 잔치를 위해 준비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결과

신부를 얻으심 — 아담이 하와를 얻음

아담이 잠든 동안 그의 옆구리가 열렸고 갈빗대가 해방되었으며, 그 결과 그는 자신과 어울리는 짝인 하와를 얻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옆구리가 창에 찢리시어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해방하신 결과 그분의 짝인 교회를 얻으셨음을 상징한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혼자 계시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그분과 어울리는 신부를 얻으셨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영원 안에서 교회의 완결인 새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어울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짝이 될 것임을 보여 준다.

사람과 하나 되심 — 아담과 하와가 한 육체가 됨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한 육체가 되며 하나의 온전한 단위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의 예표였다. 하나님의 갈망은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그분은 교회를 산출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 목표에 도달하셨다. 이 교회는 남편이신 그분께 어울리는 합당한 인성을 대표한다. 이 연합 안에서 인성은 신성과 하나 되었으며, 이 연합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장래의 새 예루살렘은 다만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일 것이며, 신성과 인성으로 구성된, 하나의 살아 있고 온전한 단위일 것이다.

사람과 함께 사심 — 아담이 하와와 함께 삶

하나 된 아담과 하와는 함께 살았다. 이것은 우주적인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사실 것임을 묘사한다. 하나님과 사람의 우주적인 결혼 생활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충분히 나타나 있다.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생활의 중심과 실재와 생명이 되실 것이며, 사람은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살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것이며 새 땅에 대해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할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결혼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그림이며, 2장 4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에 대한 그림이다. 이 두 부분은 건축 계획의 청사진으로 간주될 수 있다.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건축하는 과정이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완성된 건축물의 사진으로 간주될 수 있다.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17장, 243-253쪽)